



인천하늘고등학교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
2021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

전설을 역사로 바꾸는 매체 설화 현상 탐구

진주성 비거(飛車) 논쟁을 중심으로



 동영상 홍보 자료(클릭)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
2021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

전설을 역사로 바꾸는 매체 설화 현상 탐구

진주성 비거(飛車) 논쟁을 중심으로



인천하늘고등학교

연구 요약

- 고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비거 관광 사업화 논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 비거 관광 사업화 논쟁의 패러다임을 탐구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술, 구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 문제 제기 >**
- 설화는 매체와 만나 어떻게 역사로 문갑하는가?
 - 역사와 설화(신화, 전설, 민담)와 무엇이 다를까?
 - 진주시의 비거 관광 자원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까?

교과 기반 프로젝트 >
(8개 팀)

R	독서	주제	근대 신문의 기사 분석
		관련 교과	문학(1학기), 독서(2학기)
L	문학	주제	정평구 전설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독서(2학기)
P	정치와 법	주제	비거 논쟁 언론 기사 분석 _ 신문과 뉴스
		관련 교과	정치와 법(1학기), 윤리와 사상(1학기), 독서(2학기)
H	역사	주제	<하여가>와 <단심가>의 역사화 과정 탐구
		관련 교과	동아시아사(1학기), 세계사(2학기)
M1	수학	주제	비거 관광 콘텐츠 사업의 사회적 비용 탐구 1
		관련 교과	수학 I (1학기), 수학 II (2학기)
M2	수학	주제	비거 관광 콘텐츠 사업의 사회적 비용 탐구 2
		관련 교과	수학 I (1학기), 수학 II (2학기)
M3	수학	주제	비거 관광 콘텐츠 사업의 사회적 비용 탐구 3
		관련 교과	수학 I (1학기), 수학 II (2학기)
M4	수학	주제	비거 관광 콘텐츠 사업의 사회적 비용 탐구 4
		관련 교과	수학 I (1학기), 수학 II (2학기)

- 융합 프로젝트 >**
- 발표 : 비거 관광 자원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작품 >**
- **교육용 다큐멘터리** : 전설을 역사로 바꾸는 매체 설화 현상 탐구 _ 중·고등학교 수업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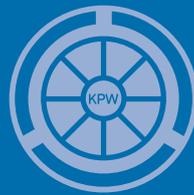
1

HANEUL ACADEMY

교육 원리



교과 기반 프로젝트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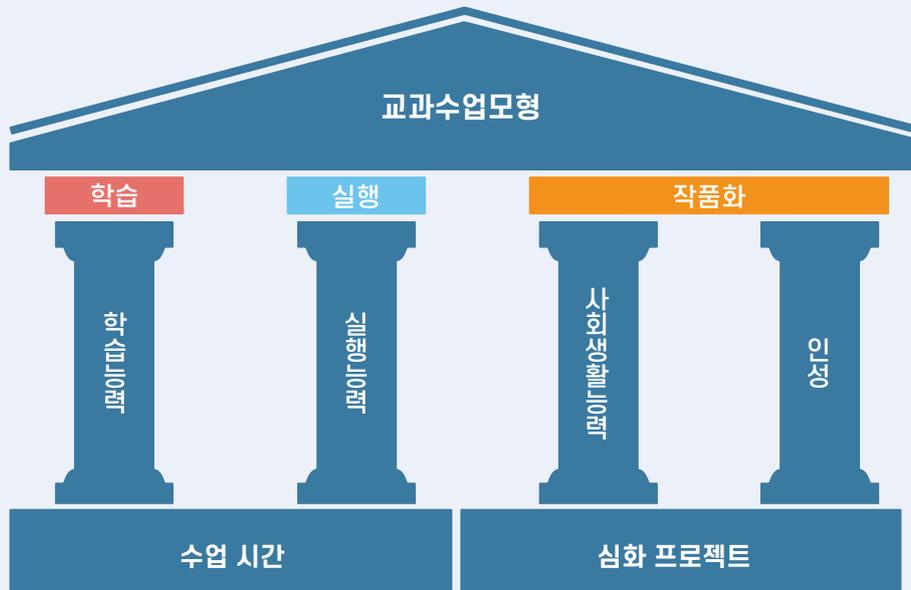


교과 기반 프로젝트	06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작품화 활동	08
IMRaD로 탐구하고 발표하기	10

교과 기반 프로젝트

1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 작품화 활동

UNESCO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학습 비전으로 **학습능력(learning to know)**, **실행 능력(learning to do)**, **사회생활 능력(learning to live together)**, **인성(learning to be)** 함양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21세기 학습 비전인 네 개의 기둥이 교과 수업을 떠받치는 구조로 비유하여, 정규 수업 시간과 이를 응용한 교과 심화 프로젝트를 실천하였습니다.



● 21세기 교육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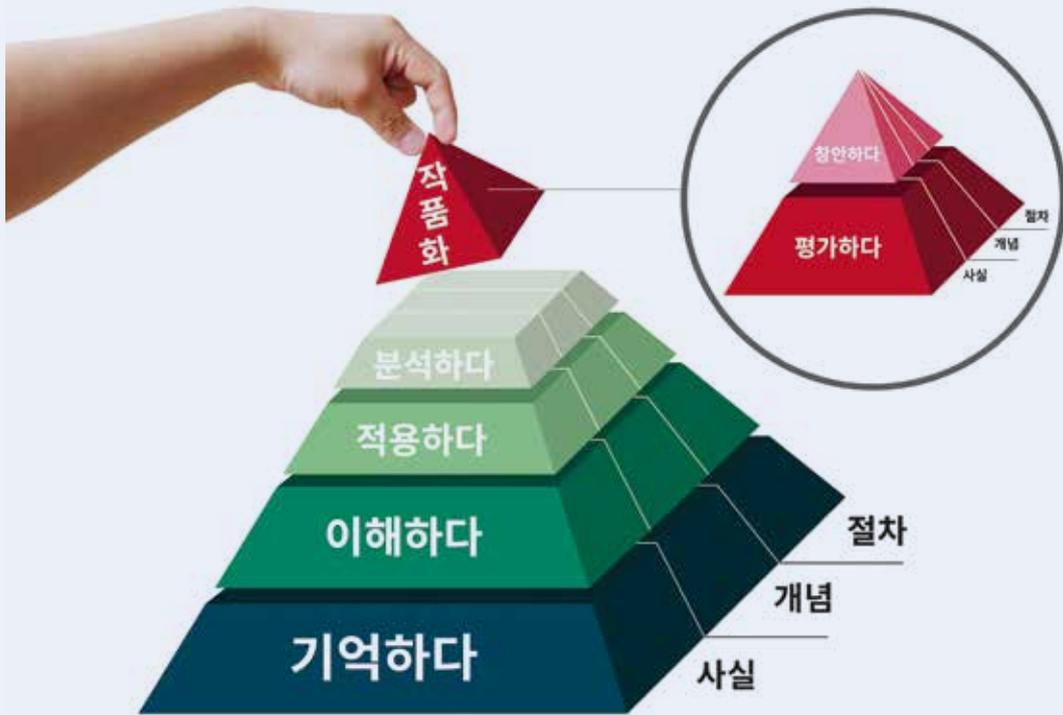
학습과 실행은 정규 교과 수업에서, 작품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생활 능력과 인성은 심화 프로젝트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 실행, 작품화 단계는 선생님들에게 익숙한 블룸의 교육목표에 맞게 연결 지었습니다.

교과 기반 프로젝트의 원리

교과 수업		프로젝트 활동	
학습 능력	실행 능력	사회생활 능력	인성
↓	↓	↓	↓
학습	실행	작품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

2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 작품화 단계

작품화 단계는 최상위 캡스톤 디자인 단계로서 블룸의 교육목표(2001)에 맞게 '평가하다'와 '창안하다' 단계와 연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블룸의 교육목표 '종합'과 '평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블룸의 교육 목표 위계(2001)와 작품화 단계 ●

작품화 단계는 수업 중 프로젝트(1단계~3단계)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4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교실 프로젝트와 교과 기반 프로젝트의 차이

수준	방법	설명	성격
1단계	수행평가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	교실 프로젝트 (수업)
2단계	프로젝트법	학생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차원	
3단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에 맞게 교수 학습을 구성하는 차원	
4단계	프로젝트 수행법	교과를 활용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차원	교과 기반 프로젝트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작품화 활동

1 작품화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역량

미래 사회를 대비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역량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과 학생은 모르지만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적 역량', 교사는 모르지만 학생이 자각하고 있는 '은폐된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학생의 역량 프레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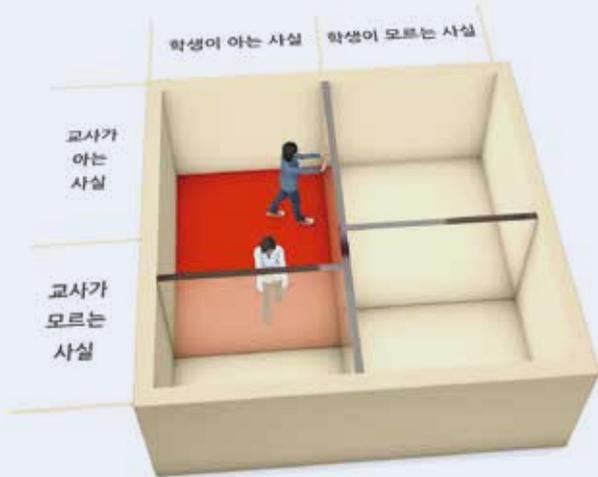
정규 학교 수업만으로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과 기반 프로젝트 활동

학생과 교사가 모두 모르는 미지의 사실을 제외하고, 학생이 모르는 잠재력과 교사가 모르는 은폐된 사실은 교과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객관적 사실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을 확장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잠재력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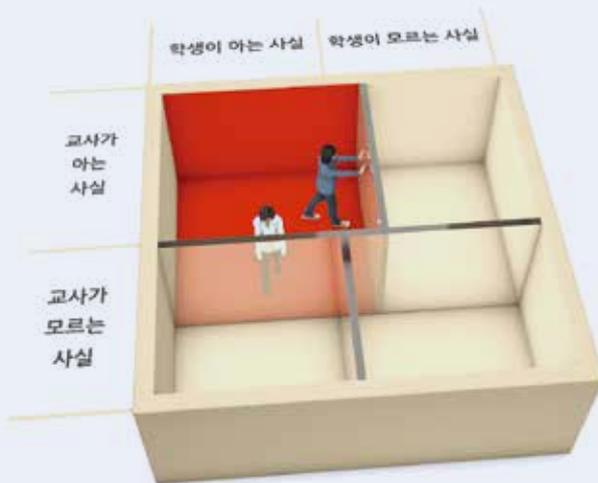
학생들은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은폐된 사실의 영역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 학생의 노력에 의한 학생 역량 프레임의 변화 ●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 교사의 노력에 의한 학생 역량 프레임의 변화 ●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이처럼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은폐된 사실)**과 **학생이 모르고 있었던 영역(잠재력)**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IMRaD로 탐구하고 발표하기

1 과학 논문의 IMRaD 포맷을 활용하여 탐구하기

저명한 과학 저널에서는 IMRaD(서론, 방법, 결과, 토론) 포맷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인문·사회·자연·공학 분야 모두 IMRaD 포맷으로 교과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IMRaD의 위계

수준	성격	특성
I (Introduction)	서론	Why? · 연구 대상과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 · 연구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좁게 설정함.
M (Methods)	방법	How? · 연구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힘. ·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재현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함.
R (Results)	결과	What · 데이터를 정직하게 모두 밝힘. · 연구 문제 해결 여부를 밝힘. ·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항목별로 잘 구성하여 산만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A (and)	매개 모음	· IMRD로 하면 '아이엠알디'로 발음해야 하므로, 매개모음 a를 포함하여 IMRaD로 표시하여 '임래드'로 발음하기 쉽게 함
D (Discussion)	토론	So What? · 연구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연구 목적 달성 여부를 밝힘. · 어떻게, 왜, 이런 결론(Conclusion)에 이르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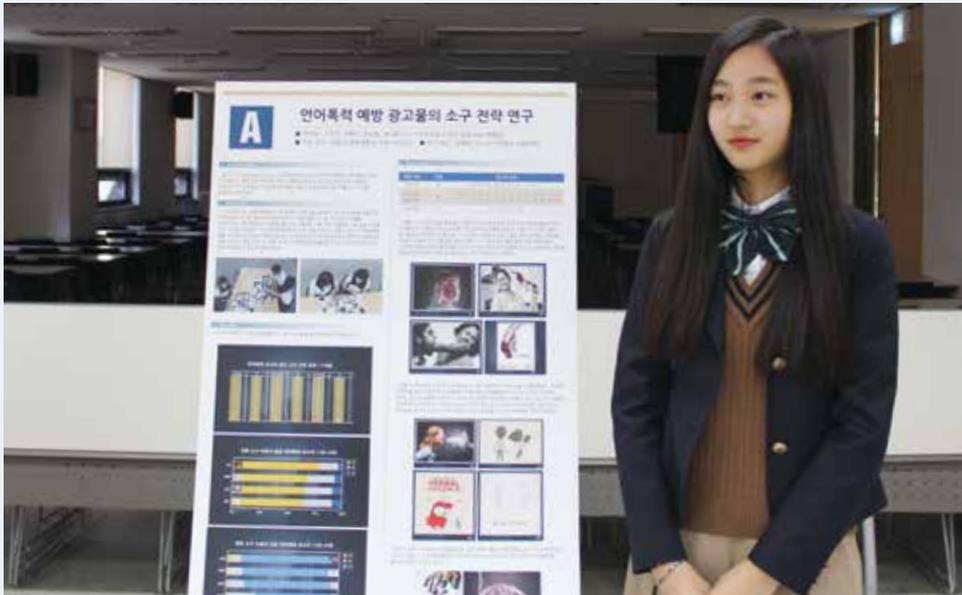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탐구의 위계인 ① 자료, ② 정보, ③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료는 ① 설명하고, 정보는 ② 분석하며, 밝혀낸 지식은 ③ 논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탐구의 위계

수준	성격	특성	방법
	탐색	타인(전문가)의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자료	인용
	생성	실험이나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설명
	탐색	타인(전문가)이 밝힌 정보	인용
	생성	자료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	분석
	탐색	다른 사람(전문가)이 밝힌 지식	인용
	생성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	주장

② IMRaD 포맷으로 학술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하기

- | 저명한 학회의 학술 대회에서는 **IMRaD 포맷**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IMRaD 포맷**으로 만든 포스터로 발표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2014년~2020년동안 발표한 **80개 연구팀** 포스터 **80장**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인천하늘고 학생의 포스터 발표 장면 ●

2

HANEUL ACADEMY

교육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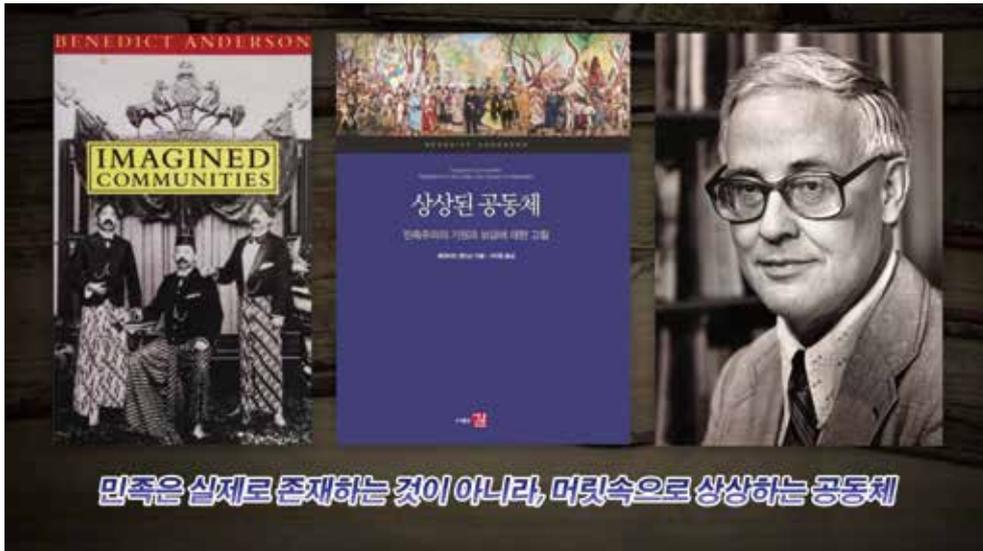
연구 성과 설명 자료



임진왜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다	14
매체 설화, 전설을 유사 역사로 만들다	17
비거(飛車) 관광 자원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26

임진왜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든다

- 민족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36~2015)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 표현하였습니다. 민족의식은 신분을 초월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도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역사학계에서는 우리의 민족주의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미 16세기 후반에 **신분을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거의 모든 생활 터전이 전쟁터가 되었으며, 약 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 임진왜란 당시 **조선 백성들은 외부 침입자들과는 다른 '우리'라는 공동체를 자각**하였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저항하였습니다. 양반과 중인은 물론 상민과 천민들까지 하나로 뭉쳐 왜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민족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의 민족의식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강조하는 근대 유럽식 민족주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주입한 서구식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외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족의식**이었습니다.



- 오늘날 전국 곳곳에 있는 임진왜란 관련 전승 기념관과 기념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 당시 외침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설화를 통해 상상의 공동체가 유지**된 것입니다.



매체 설화, 전설을 유사 역사(사이비 역사)로 만들다

-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전설은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승하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전하고,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고, 인물 또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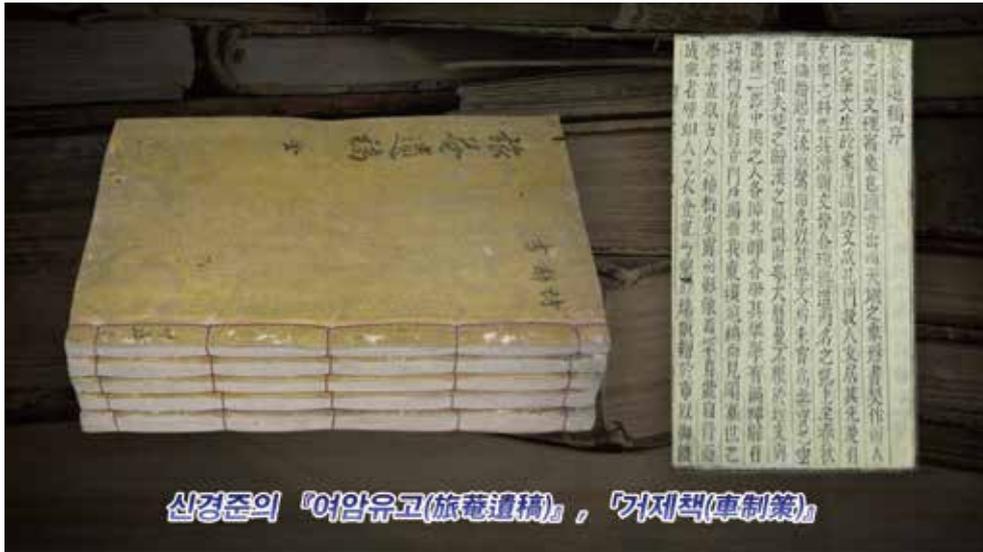
설화와 역사의 특징

특징	(구비) 설화			역사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다고 믿음	진실로 믿음	흥미	사실
시간과 장소	태초의 시간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과장소	뚜렷한 시간과장소 없음	구체적 시간과장소
증거물	포괄적 증거	구체적 증거 또는 인물	포괄적 증거	구체적 증거
주인공	신 또는 신적인 인간	특별한 인간	평범한 인간	실존 인물
전승 범위	민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국가적

-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료는 '직접 사료'와 '간접 사료'가 있는데요,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사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직접 사료'란, 당사자 또는 당대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기록한 것인데요, 아쉽게도 진주성 전투에서 비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사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평구 본인 또는 당대의 인물이 비거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비거와 관련된 '간접 사료'는 18세기 이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말 왜구가 영남의 한 읍을 포위했을 때, 비거를 이용하여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신경준의 『여암유고』에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와 주인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담에 불과**합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에 수록되었다고 하니, 마치 공신력 있는 간접 사료에 기록된 것 같지만, 개인 문집인 『여암유고』에 수록된 <거제책>은 **신경준이 1754년에 응시한 과거 시험 답안**에 불과합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旅菴遺稿)』, 「거제책(車制策)」

- 19세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비거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고려말을 임진왜란 시기로** 지칭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였고, 비거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면서 윤달규라는 구체적인 인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규경의 개인 저작물에서 비거가 활약한 구체적인 시기와 구체적인 인물이 추가되면서 **민담이 전설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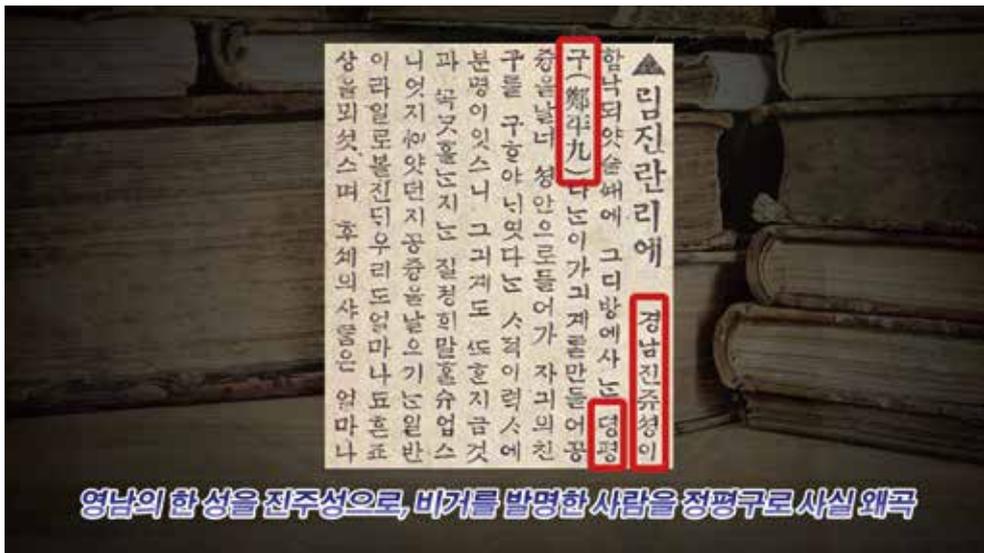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그 뒤 비거 전설은 20세기에 이르러 1914년 8월 21자 <매일신보> 기사 때문에 역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914년 8월 21일자 <매일신보> 기사

- 1914년 8월 21자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영남의 한 성이 진주성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었고, 비거를 발명한 사람을 정평구로 단정하였습니다.



영남의 한 성을 진주성으로, 비거를 발명한 사람을 정평구로 사실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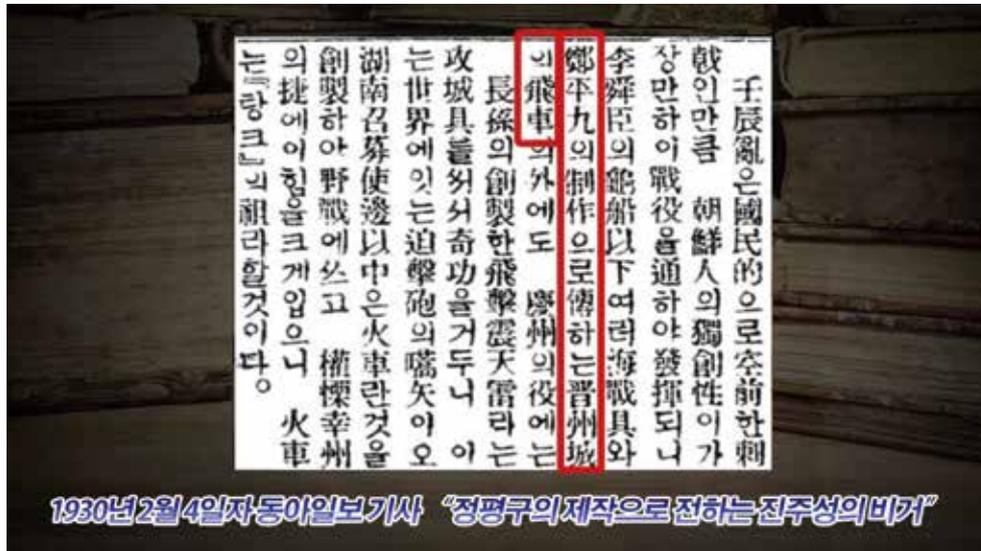
- 1923년 권덕규는 『조선어문경위』라는 **조선어 교과서**에서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비거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읽기 자료로 넣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어 교과서에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실린 셈이다.**



- 최남선은 1930년 2월 4일자 <동아일보>에 실은 <조선역사강화>라는 글을 통해 비거 전설을 소개하였습니다. 최남선의 <조선역사강화>는 **원래 역사 개론서**였는데,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신문에 연재한 것입니다.



- 따라서 정평구의 비거는 **최남선에 의해 학술서에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최남선은 “정평구의 제작으로 전하는 진주성의 비거”라고 설명하면서 **전설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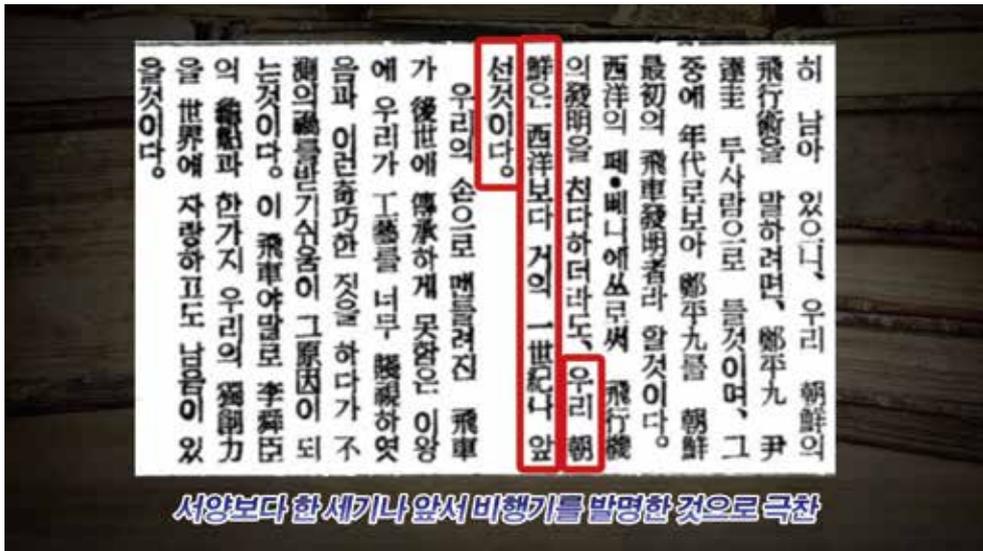
- 비거와 관련된 역사 왜곡의 문제는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이윤재가 1934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독창과 발명>이라는 글에서 불어졌습니다.



- 이윤재는 국학의 권위자인 신경준 선생이 임금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할 리가 없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정평구의 비거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윤재는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근거로 최초의 비거 발명자는 정평구이며, 조선은 서양보다 한 세기나 앞서 비행기를 발명한 것으로 극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에 의해 임진왜란 당시 김제인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비거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정평구의 비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역사 다큐멘터리인 **KBS 역사 스페셜**에서는 정평구의 비거를 복원하여 시험 비행하였고, 그 뒤 국립과학관이나 항공 박물관에 비거 복원 모형이 전시되면서, 비거는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통쾌하게 물리쳤다는 적퇴치담(賊退治談) 계열의 전설들은, 언론 매체에 의해 과장되거나 영상 매체로 재현되는 과정을 통해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면서 **유사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비거 이야기 역시 민담이 전설로 바뀐 후, 매체 설화에 의해 유사 역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담 → 전설 → 유사 역사로 발전하는 비거 이야기

특징	구비 설화		매체 설화
	민담	전설	유사 역사
내용	고려말 왜구가 영남의 한 읍을 포위했을 때, 비거를 이용하여 탈출	임진왜란 때, 영남의 한 성에서 비거 사용 (비거 제작자는 불분명)	진주성에서 정평구가 비거를 발명하여 사용
시간	고려말(1368~1398)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장소	영남의 한 읍	영남의 한 성	진주성
주인공	?	윤달규(尹達圭)?	정평구(鄭平九, 1566~1624)
출처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旅菴遺稿』, 『車制策』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五洲行文長箋散稿』	1914년 매일신보(每日申報), "반도비행(半島飛行)의 일대신기록(一大新記錄)"

(김형원, 2022)

- 정몽주와 이방원이 한 시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유사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전설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하는 현상은 구비 설화가 신문, 방송,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와 만나, **매체 설화가 되면서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 매체 설화는 역사 뉴스, 역사 다큐멘터리, 사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용자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극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극은 허구를 전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매체 설화에 의한 전설의 역사화 현상 (김평원, 2022)

특징	매체 설화		
	역사 뉴스	역사 다큐멘터리	사극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
매체 사료	뉴스 텍스트	다큐멘터리 텍스트	내러티브 텍스트
제작자의 태도	사실을 전달	사실을 토대로 설득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
수용자의 태도	사실이라고 믿음	학술적 근거가 있다고 믿음	개연성, 합리성이 있다고 인식
문제점	오류, 과장, 변조	오류, 과장, 변조가 사실로 변화 ⇒ 유사 역사화	역사 왜곡

-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화려한 그래픽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권위를 얻는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학술적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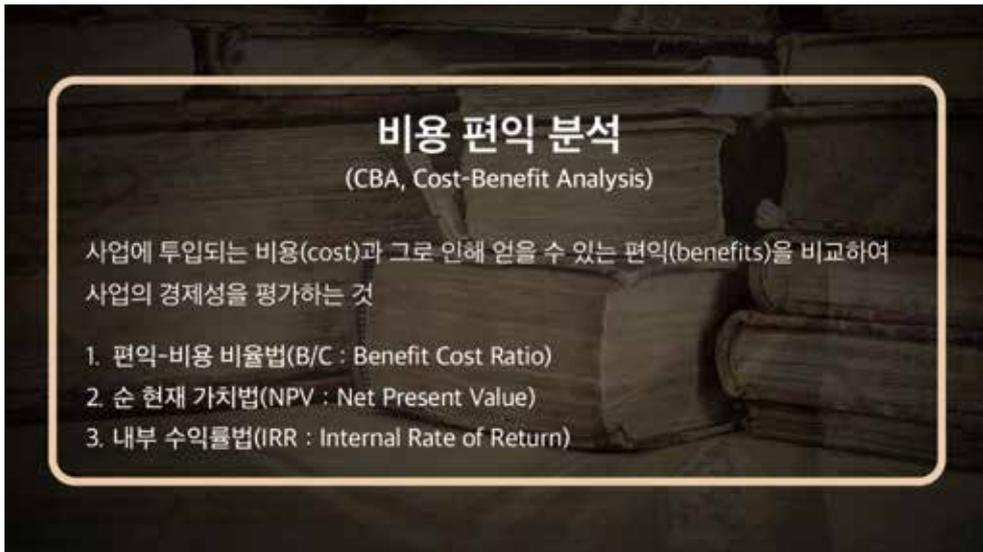


- 오류, 과장, 변조의 정도가 심한 역사 다큐멘터리는, 유사 역사 즉 사이비 역사에 해당하며, 역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라 할 수 없습니다. 매체 사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매체 설화**는 **문화콘텐츠**이고, 직접 사료나 검증된 간접 사료를 근거로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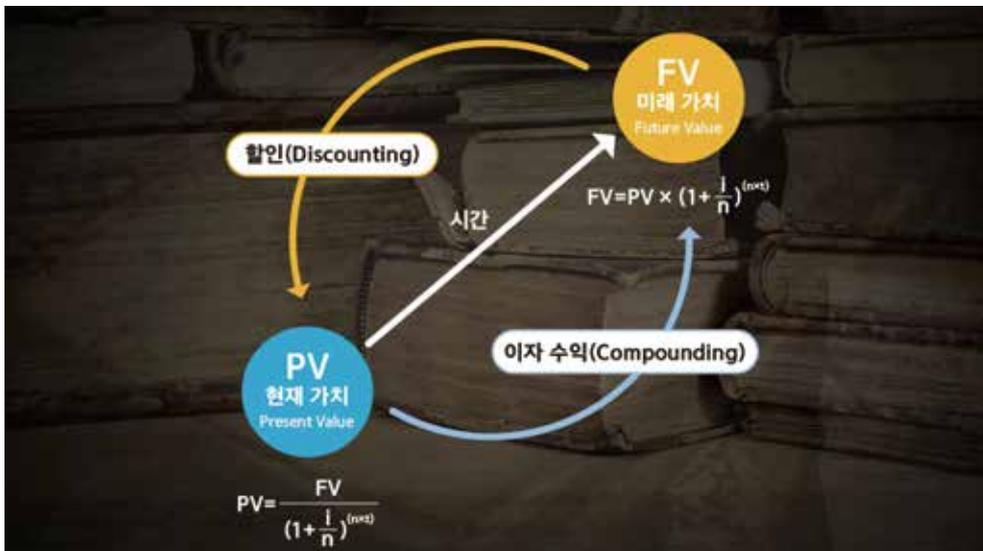


비거(飛車) 관광 자원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편익 분석**이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편익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비용-편익 분석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익히고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은 **등비수열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비용-편익 분석 1단계 : 관광객 수 추정

- 관광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국가통계포털과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진주 비거 테마 파크 조성 후에 진주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추정하였습니다.



2 비용-편익 분석 2단계 : 비용의 계산

- 비용 추정은 진주시 비거 테마공원 사업 계획안에서 밝힌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미 사업을 끝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진주에서 추정한 총사업비 1,270억원의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과대 추정된 비목은 없는지 검증하였습니다.



3 비용-편익 분석 3단계 : 총비용의 추정

- 학생들은 향후 10년간 투입되는 비용을 추정한 후 **할인율 4.5%**를 적용한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였습니다. 미래 시점의 예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초 투입 비용을 포함하면 이 사업의 총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편익 분석 4단계 : 편익의 계산

- **직접 편익**은 진주를 방문할 관광객들이 지출할 입장료, 숙박료 등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간접 편익**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학생들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타당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학적 모델 선정하거나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함께 분석하는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많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5 비용-편익 분석 5단계 : 총편익의 추정

- 모든 편익 값들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후, 총합을 계산하면 총편익이 됩니다.



6 비용-편익 분석 6단계 :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비용이 편익보다 클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비용 > 편익** : 비거 관광 자원화 논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간접 편익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 편익을 과대 추정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비용 < 편익** : 비거 관광 자원화 사업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수입과 같은 직접 편익은 물론 **국민이 느끼는 자부심과 같은 간접 편익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바야흐로 매체 설화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체 설화가, 유사 역사, 즉, **사이 비 역사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문화 콘텐츠의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상 : 전설을 역사로 바꾸는 매체 설화 현상 탐구



 동영상 홍보 자료(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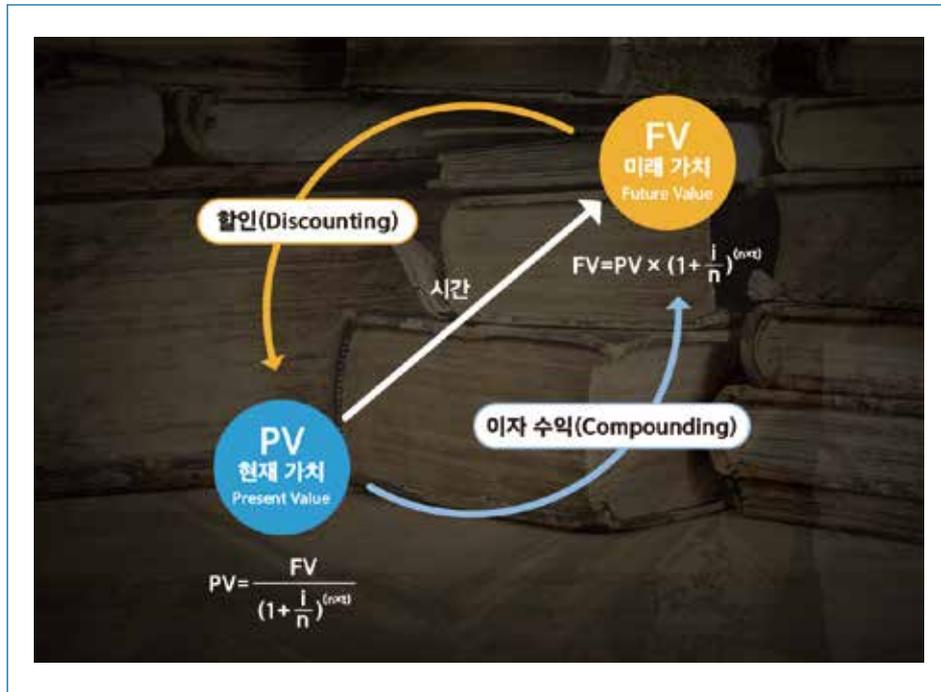


2021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 참여 인원

프로젝트 기획	김일형(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 이영종(인천하늘고등학교 교감) 천도현(인천하늘고등학교 꿈열정지원부장)
프로젝트 지도	이예은(인천하늘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이형주(인천하늘고등학교 사회 교사) 김승우(인천하늘고등학교 윤리 교사) 이채영(인천하늘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팀	학번	성명
R 독서팀	20127	이정윤
	20129	임중현
	20209	안다인
	20211	오지우
L 문학팀	20101	김민경
	20105	김현아
	20106	노소윤
	20323	심규현
P 정치와 법팀	20109	양채원
	20121	김영인
	20201	고별하
	20223	김지원
H 역사팀	20225	손현우
	20113	이서연
	20118	정혜인
M1 수학 1팀	20128	이준우
	20111	옥예린
	20404	문소울
	20410	윤서빈
	20501	강미주
	20507	백윤서
M2 수학 2팀	20511	이가원
	20518	남현우
	20526	전수민
	20527	정세현
	20603	김도은
	20713	이예성
M3 수학 3팀	20805	김민채
	20811	정예지
	20124	양준서
	20228	장준하
	20316	임정은
	20417	김영상
M4 수학 4팀	20420	노 명
	20502	곽준이
	20514	조서연
	20515	조하영
	20703	김서현
	20705	김유신
	20720	신병호
	20810	이수현
20817	고준성	
20820	김현석	

프로젝트 설계	김평원(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호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	--



인천하늘고등학교

한 분야를 천착하는 전문가가 주목을 받았던 ‘분화’의 시대가 저물고
 지식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개인의 역량을 수능 시험과 내신 석차로 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사회 등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만을 활용해도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 -